

이번에도 무소속 돌풍 이어질까

■신안군수 후보

전경배 42·민 무직	정연선 64·평 정당인	고길호 73·무 신안군수	박우량 62·무 정치인	임흥빈 57·무 무직
재산 1억3320만원	70억1760만원	15억1811만원	4억9041만원	3억8994만원
병역 병역필	병역필	병역필	병역필	병역미필
세금 1112만원	5억5842만원	4174만원(채납액 11만원)	6347만원	3438만원
전과 전과 2건	전과 1건	전과 1건	전과 1건	전과 4건
학력 중앙대 국제관계학과	동신대 부동산컨설팅 석사	목포과학대 관광경영계열	성균관대 행정학 박사 수료	초당대 행정학 석사
주요 공약 ·선박자율주행시스템 도입 ·군 직영 병원선 배치 ·에어택시형 항공회사 설립 ·국제 섬엑스포 유치 ·인사예고제로 공경 인사	·연륙·연도교 조기 착공 ·항구적 물관리대책 마련 ·농축수산 소득 확충 ·문화관광시설 확충 ·친일유물 세계 명품화	·심자형 도로망 완성 ·혁신권 관광패턴 개선 ·주민소득 기반 개선 지원 ·읍·면에 종합운동장 조성 ·물문제 항구적 해결	·천사(1004)섬 브랜드 부활 ·수산자원 전략소득사업 육성 ·여객선 아간운행 확대 ·읍면별 소규모 요양원 건립 ·갯벌모실길 1004km 조성	·섬마을지원센터 설치 ·거점도서 재생과 복원 ·에너지 자립섬 구축 ·명품 테마로드 조성 ·치유휴양단지 조성

6·13 격전지를 가다

■신안군수

전남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유일하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곳이 신안이다.

전략공천 후유증에다, 섬이라는 지형적 특성상 유권자 대면이 쉽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신안군수 선거는 5파전이다. 무소속으로 출마한 현·전직 군수인 고길호(73) 후보와 박우량(62) 후보가 양강을 형성하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 전경배(42) 후보와 평화당 정연선(64) 후보, 무소속 임흥빈(57) 후보가 3중을 형성하며 추격하고 있다.

다자구도의 시작은 민주당 공천 잡음이었다. 재선 군수를 지낸 박우량 후보가 민주당 공천에서 배제되면서 구도가 급변했다. 박 후보의 배제 이유는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공천을 받고도 돌연 출마를 포기해 공천을 무력하게 했다는 것이었다.

공천 배제된 박 후보는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고, 민주당은 전경배 후보를 전략공천했다. 이는 끝까지 경선을 요구했던 3선 전남도의원 출신 임흥빈 후보마저 무소속으로 내몰았다.

다자구도 속 5명의 후보들은 모두 '승리'를 자신했다. 다자구도로 '7500표만 획득하면 당선 가능하다'는 분석서 때문이다.

승리 요인으로 고 후보와 박 후보는 군수를 지내면서 쌓은 조직력을, 전 후보와 정 후보는 정당의 조직력을, 임 후보는 워싱턴 유력 후보라는 지역성을 내세우고 있다.

후보들은 섬이라는 특성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선거운동을 1시간 일찍 시작했다.

고길호·박우량 2강 속 전경배·정연선·임흥빈 3중 DJ 고향이지만 6차례 선거 중 최근 3번 무소속 당선 다자구도 형성... 후보들 "7500표면 당선" 승리 자신 섬이라는 지형적 특성상 유권자 만나기 힘들어 유권자들 "소득증대 통해 젊은이 돌아오게 해야"

오전 6시께에 출발하는 첫배를 타야 하기 때문이다.

선거운동도 특색이 있다. 섬에 한 번 들어가면 하루 종일 있어야 한다. 자칫 기상 상황이 악화되면 2~3일 묶이는 때도 있다. 선거 준비를 길게 잡아 유권자들을 한번이라도 만날 수 있다.

신안군수 선거의 최대 관전포인트는 이번에도 무소속 돌풍이 이어지느냐다. 김대중 전 대통령 고향임에도 그동안 치른 6번의 지방선거 중 최근 내리 3번 무소속이 당선됐기 때문이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도 무소속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직 군수인 고길호 후보는 지난 4년의 안정적인 균형 운영과 행정의 연속성을 내세우고 있다. 그는 "3의 정신(정의·신의·창의)으로 반칙과 거짓 없는 신안군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고 후보는 "4년마다 돌아오는 철새는 우리의 문제와 해답을 알지 못하고, 그릇된 탐욕은 특권과 분열을 양산한다"며 상대 후보들을 경계했다.

그는 주요 공약으로 성장동력의 기반이 되는 심자형 도로망 완성, 신안관광 500만 시대 실현, 경찰서·교육청·소방서 등 유관 기관 관내 이전, 송공항 해상물류기지 조성, 한국섬정착연구원 유치 등을 제시했다.

박우량 후보는 민주당 공천에서 배제되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배제 이유는 돌연 출마 포기였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아내의 병이 악화돼 병간호를 해야 했다. 군수 자리보다 아내의 생명이 더 중요했다"고 해명했다.

박 후보는 '무한한 상상력'이 강점이라며 "맞춤형 정책으로 유권자들에게 감동을 주겠다"고 말했다. 그는 '천사(1004)의 섬' 브랜드 부활, 농작업용 편의장비 보급, 65세이상 노인 노인 보행보조차 지원, 여객선 아간운행 확대, 도초에 '세계 생태도 섬' 조성, 읍면별 1곳 이상 소규모 요양원 건립, 목욕탕 없는 낙도주민 목욕권 지급 등을 공약했다.

민주당 전경배 후보는 '준비된 40대 새 얼굴'을 기치로 내걸어 무소속 60·70대의 전·현직 군수와 차별화하고 있다. 전 후보는 '문제인 특사'를 자임하면서 "당의 선택을 믿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낙후된 신안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려면 중앙정부의 지원이 불가피하다"며 "예산 폭탄"을 선물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공약으로 어르신 수당 확대, 방문 의료 시행, 생명안전 배움터 개설, 에어택시형 항공회사 설립, 사계절 관광리조트 조성, 국제 섬엑스포 유치, 선박자율주행 시스템 도입, 수도권에 신안학숙 설립, 읍면별 자율예산 편성권 부여 등을 내

놨다. 평화당 정연선 후보는 전남도의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장과 재목신안군향우회장을 지냈다. 그는 고령화 인구가 많은 만큼 복지문화시설을 확충하고, 청년들이 신안에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정책을 펴겠다고 약속했다.

또 연륙·연도교 조기 착공, 항구적 물관리종합대책 추진, 소득과 연계한 문화관광시설 확충, 응급환자 수송시스템 개선, 인사행정 시스템 개선을 통한 공정한 인사, 권역별 군정보고회 개최로 투명 균형 실현 등을 내놨다.

3선 전남도위원을 지낸 무소속 임흥빈 후보는 '선택과 집중'이 선거전략이다. 5명의 후보 중 유일한 워싱턴 출신이다. 그는 "그동안 워싱턴에서 군수를 단 한 명도 배출하지 못했다"면서 "7500표를 얻을 자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워싱턴에 승부를 건다는 전략이다. 임 후보는 중단 없는 연륙·연도교 추진, 섬마을 지원센터 설치, 에너지 자립섬·스레기 제조업 구축, 바다섬 조망하는 명품 테마로드 조성 등을 공약했다.

지역민들은 지역 화합과 경제 살리기 등을 주문했다. 농협 전무를 지낸 김동섭(61) 씨는 "이번 선거는 다른 때보다 후보가 많이 출마했다"면서 "지역 화합을 위해 패자는 승자에게 진정한 박수를 보내고 승자는 패자와 함께하는 군정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건설업을 하는 양귀현(62) 씨는 "민선 7기에는 다도해의 특수성을 잘 살려 농·축·수산업계의 지원을 확대하고 소득 증대를 통해 젊은 일꾼들이 찾는 신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6.13 지방선거 청소년 모의 투표 광주운동본부가 6일 오후 광주 동구 청소년꿈다다 인센터에서 광주시교육감 후보인 이정선, 장휘국, 최영태 후보를 초청해 토론회를 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학생들은 적성이나 재주 알고 싶은데 공부만 하라는게 제대로 된 교육인가”

광주 학생·청소년, 전국 최초 교육감 후보 초청 토론회

학생과 청소년이 교육감 후보자들을 초청해 묻고 답하는 토론회가 6일 광주에서 전국 최초로 열렸다.

선거를 불과 1주일 남겨둔 시점에서 교육 현장의 주인공이지만, 투표권이 없는 학생들의 부름을 받고 달려온 3명의 후보자는 2시간여 진행된 토론회에서 시종 진지한 모습으로 청소년 패널의 질문에 답했다.

토론회는 이날 오후 4시 광주시 동구 광주시청소년꿈다다인센터에서 이정선·장휘국·최영태 후보와 청소년, 학부모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졌다. 학생들이 주도한 토론회에서 문서영 광주시교협 회장, 유재열(승일고) 광주 YMCA 회장, 학교밖청소년 쥘드림청소년단 이소은양 등 3명이 패널로 나섰다.

토론회는 시종 밝은 분위기 속에 진행됐지만, 학생들이 일부 현안에 대해 송곳질문에 나서자 후보자들이 긴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학생 패널이 "우리 학생들은 내장적이거나 적성, 재주를 알고 싶은데 공부만 하라고 한다. 모두가 서울 명문대를 가라 한다. 이게 과연 제대로 된 교육입니까"라고 묻는 게 대표적이다. 이정선·최영태 후보는 답변에서 "진로진학 지도가 부실했던 것 같다. 진로진학 지도의 중요성을 강조해 학생들의 재능을 발견하고 키우도록 돕겠다"고 다짐했다.

3선에 나선 현 장휘국 교육감도 "교육감이 된 이후 공부나, 성적만을 강조하진 않고 오히려 다양성, 개성을 존중해왔다. 다소 아쉬운 점이 있지만 앞으로 보다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대입제도, 학생자치활동 및 동아리활동, 학교밖 청소년 문제 등 다양한 질문이 쏟아졌고, 3명의 후보자는 한결같이 최선을 다해 답변하면서 '내가 광주교육감 직임이 있으면 인식시키려 애쓰는 모습이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사전투표 8~9일...신분증만 있으면 어디서나 가능

오는 13일 치러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8일부터 이틀간 전국 3512개의 사전투표소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선 사전투표는 8일부터 9일까지 실시한다"며 "별도의 신고는 필요 없으며 선거권이 있는 사람이라면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나 스마트폰 앱 '선거정보'에 나와 있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투표장에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되어 있는 신분증 중 하나를 반드시 가져야 한다.

자신의 지역구 구·사·군의원 선거구 밖에서 사전투표할 때는 기표용 투표용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넣어 야 한다. 본인의 선거구 안에서 투표하는 사람은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한 뒤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해당 사전투표소가 선거구 안 또는 밖에 있는지는 투표소 입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전투표는 전국 단위 선거로는 4년 전 제6회 지방선거 때 처음 도입됐다. 당시 투표율은 11.5%였고, 2016년 20대 총선 12.2%, 작년 19대 대선 26.1%로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2018년도 광주문화신탁

예금특판 행사 + 행복이벤트

파워예탁금

예금특판 1년 2.5%

행복이벤트 1등 참여행권 1인2매...1명

추첨: 2018년 8월 3일 | 응모기간: 2018년 3월 12일~7월 31일

발표: 2018년 8월 6일

2등 LG트롬건조기...2명 | 3등 다이슨 무선청소기...3명 | 4등 쿠쿠전기밥솥...10명 | 5등 테팔프라이팬...100명 | 6등 밀폐용기세트...300명

쉽고 간편하고 편리하게!

타기관 대출을 하나로 묶는 문화신탁 통합대출 서비스

태양광발전소 대출(솔라론)

시설자금대출 최대 80%
운영자금대출 최대 70%
대출기간 최대 20년

건축시설자금대출

건축비 최대 80% 까지
(표준단가표에 의한 건축비 내)
공정율에 의한 기성금 지급(직불)

신용대출

최고 1억 5천만원까지

직장인: 직장기준 신용대출, 골든큐 신용대출 등
지역인: - 예월 평균 카드예월의 2배까지 가능
- 장원대출, 운영자금, 시설자금

담보대출

시세 80%까지
법인 100억
개인 50억 가능

각종 부동산담보(아파트, 주택, 상가, 빌딩, 대지, 전, 담야마 등) 및 신축자금(시설자금) 등

정부보증 햇살론대출

근로자 최대 1,500만원
(근로자 금액한도 기준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지원)

지역업자 최대 2,000만원

경락잔금 대출

법원 최초 감정평가액의
최대 80%

문흥본점 266-4150

양산지점 573-4150

운암지점 528-4150

운암산지점 513-4150

매곡지점 572-4150

첨단지점 576-4150